

미래에셋증권 조세정책

미래에셋증권은 세법 준수와 법 준수 이상의 책임 있는 투명한 납세가 국가재정 기여와 주주 가치 제고, 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근본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세무원칙·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 정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과세당국과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원칙에 따라서 투명한 납세를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세무 원칙

- 세법 준수와 투명한 납세가 경영의 중요 일부분임을 인식한다.
- 책임 있는 세무 원칙에 따라 세금신고 및 납부를 충실히 이행한다.
- 조세 회피를 위해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이전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조세 회피 목적의 조세구조(Tax Structures) 사용을 지양하며, 조세정보 공유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활동이 없는 조세 피난처(Tax Havens)에 법적 실체를 운용하지 않는다.
- 과세당국과 건설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협력의무 이행에 최대한 노력한다.
- 조세 리스크 감소를 위해 선제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세금신고 및 증빙서류, 회계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납세 정보의 공개

법인세 관련 세부내용을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내 감사보고서를 통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공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1. 법인세 회계 산출 기준
2.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세부내역

3. 일시적 차이의 구성내역

4.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및 세율정보

이외에도 매년 통합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수익과 납세액 관련 정보, 법인세 유효세율 및 법정세율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공개합니다.

세무 관리조직 운영

세무 이슈는 현업 전반에 걸친 실무레벨에서 상시 모니터링 되며, 이슈 식별 시 전문성을 보유한 재무팀의 추가 검토 등을 통한 CFO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중대한 세무 이슈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신중한 검토 프로세스를 준용하며, 의사결정 필요 시 이사회에 상정됩니다.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지배기업 등의 제출의무자에게 다국적기업 그룹 내 관계회사에 대한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 및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동 규정에 대해 당사는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